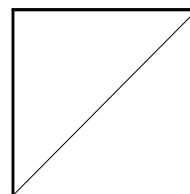


공 개



의안번호	제 110 호
의 결 연 월 일	2021. 3. 17. (제 5 차)

의
결
사
항

CD 금리의 금융거래 중요지표 지정안

금융위원회회의 안건

제 출 자	위원장 은 성 수
제출 연월일	2021. 3. 17.

1. 의결주문

CD 금리(현재 금융투자협회가 산출하고 있는 CD 수익률)를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상 금융거래 중요지표로 지정하고, 중요지표 지정의 효력 발생일은 중요지표 산출기관 지정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로 한다.

2. 제안이유

CD 금리는 이에 기반한 금융거래의 규모가 크며, ‘24년 이후에도 EU 금융기관과의 금융거래에서 한국의 CD 금리 지표를 지속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금융거래지표법상 중요지표를 지정하고 EU 측으로부터 동등성 승인을 받을 필요 존재

3. 주요골자

금융거래 중요지표 심의위원회(‘20.12월)에서 금융거래지표법 제4조제1항 중요지표 심의기준을 구체화하고 CD 금리에 대하여 지정 여부를 심의한 결과, CD금리는 중요지표 지정 요건을 충족하여 중요지표로 지정

4. 참고사항

가. 심의위원회 안건(요약) : **【별첨】** 참조

【별첨】

중요지표 지정 심의기준 및 중요지표 후보 심의(요약)

1. 심의 배경

- '24년 이후에도 EU 금융기관과의 거래 지속을 위해 금융거래지표법상 중요지표 지정 및 EU의 동등성 승인* 획득 필요

* 한국의 금융거래지표법이 EU로부터 동등성 승인을 받을 경우, 금융거래지표법에 따른 중요지표를 '24.1.1일 이후에도 EU 역내에서 활용 가능

- EU는 LIBOR 조작을 계기로 벤치마크법(EU BMR)을 제정하여, '24.1.1일부터 EU가 승인하지 않은 非EU국가 지표는 사용 불가

2. 중요지표 심의기준

- **[심의기준 정립]** 금융거래지표법 제4조제1항 및 제1차 지표법 심의위원회 (20.12.10일) 검토결과 등을 바탕으로 중요지표의 심의기준 마련

- **3가지 기준**(^①사용규모 500조원 이상 ^②대체불가 ^③조작 취약 및 시장에 중대한 영향 발생)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할 경우 **중요지표로 지정 가능**

- **[사용규모]** 해당 금융거래지표가 사용되는 금융거래 규모가 500조원 이상일 것

- 사용규모 기준은 EU BMR의 핵심지표 요건(약 660조원) 및 국내 금융산업 자산 규모(약 5,300조원) 등을 감안*하여 500조원으로 설정

* 중요지표 기준금액/금융산업 자산규모 비율(%) : (벨기에) 31.3 (스페인) 12.5 (네덜란드) 9.6 (한국) **9.4** (이탈리아) 7.2 (독일) 4.4 (프랑스) 4.2 (캐나다) 3.1 順

- **[대체불가]** 발행주체의 신용위험을 유사하게 반영한 지표가 부재하며, 해당지표를 대체할 수 있는 지표에 대한 합의·계약 등이 없을 것

* 동일한 성격의 지표를 여러 기관이 제공하거나, 공개된 정보로 유사지표 산출이 가능한 경우 등도 제외

□ **[시장영향]** 지표 산출과정 등이 조작에 취약하고, 조작 등 발생시 시장 등에 중대한 영향이 발생하여 중요지표로 지정할 공익적 요청이 클 것

- 공익적 요청은 금융시장 안정, 금융소비자 보호,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 중요지표 심의 기준 관련 금융거래지표법 규정 >

금융거래지표법 제4조(중요지표의 지정 및 해제) ①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금융시장, 금융소비자 보호 및 실물경제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금융거래지표를 중요지표로 지정할 수 있다.

1. 해당 금융거래지표가 사용되는 금융거래의 규모가 큰 경우
2.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금융거래지표가 없는 경우
3. 금융거래지표의 타당성 또는 신뢰성이 저해되면 투자자 등 금융시장 참여자들에게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경우

3. CD 금리 심의결과

□ CD 금리는 ❶규모기준 및 ❸시장에 중대한 영향 기준 충족

❶기준 : CD 금리는 원화 표시 IRS의 유력한 준거금리로 널리 사용되며, 사용규모는 '20.9말 기준 약 3,600~7,000조원 수준(> 500조원)

❸기준 : CD 금리는 호가자료에 기반하여 산출되므로 조작 가능성에 취약, 對EU 파생거래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어 EU 미승인시 금융시장 안정에 중대한 영향 발생가능*

* EU 동등성 승인은 非 EU 국가의 지표법 체계가 EU BMR과 동등한 수준임을 유럽 집행 위원회가 인증하는 것을 의미, 미승인시 '24년부터 EU 금융기관과의 거래에서 사용 불가

4. 평가

□ CD 금리는 금융거래지표법 상의 중요지표 지정 요건을 충족하며, 對 EU 거래규모가 커 중요지표 지정 실익이 큰 것으로 판단됨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소관부서	금융시장분석과	은행감독국
연 락 처	2100-2855	3145-8036